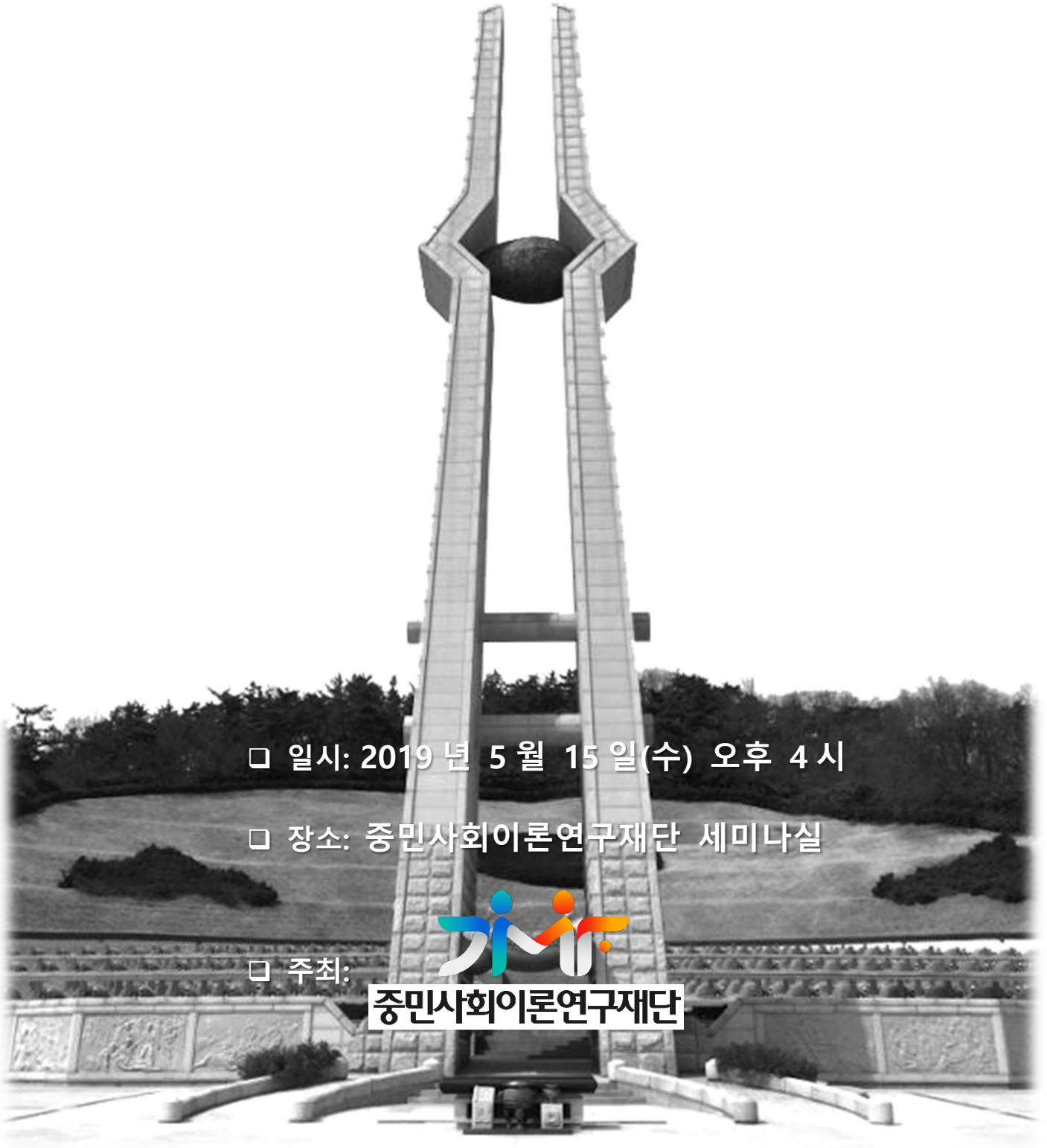
< 제 18 회 중민포럼 >

# 파국적 충격에서 탈바꿈으로:
# 5.18 경험의 재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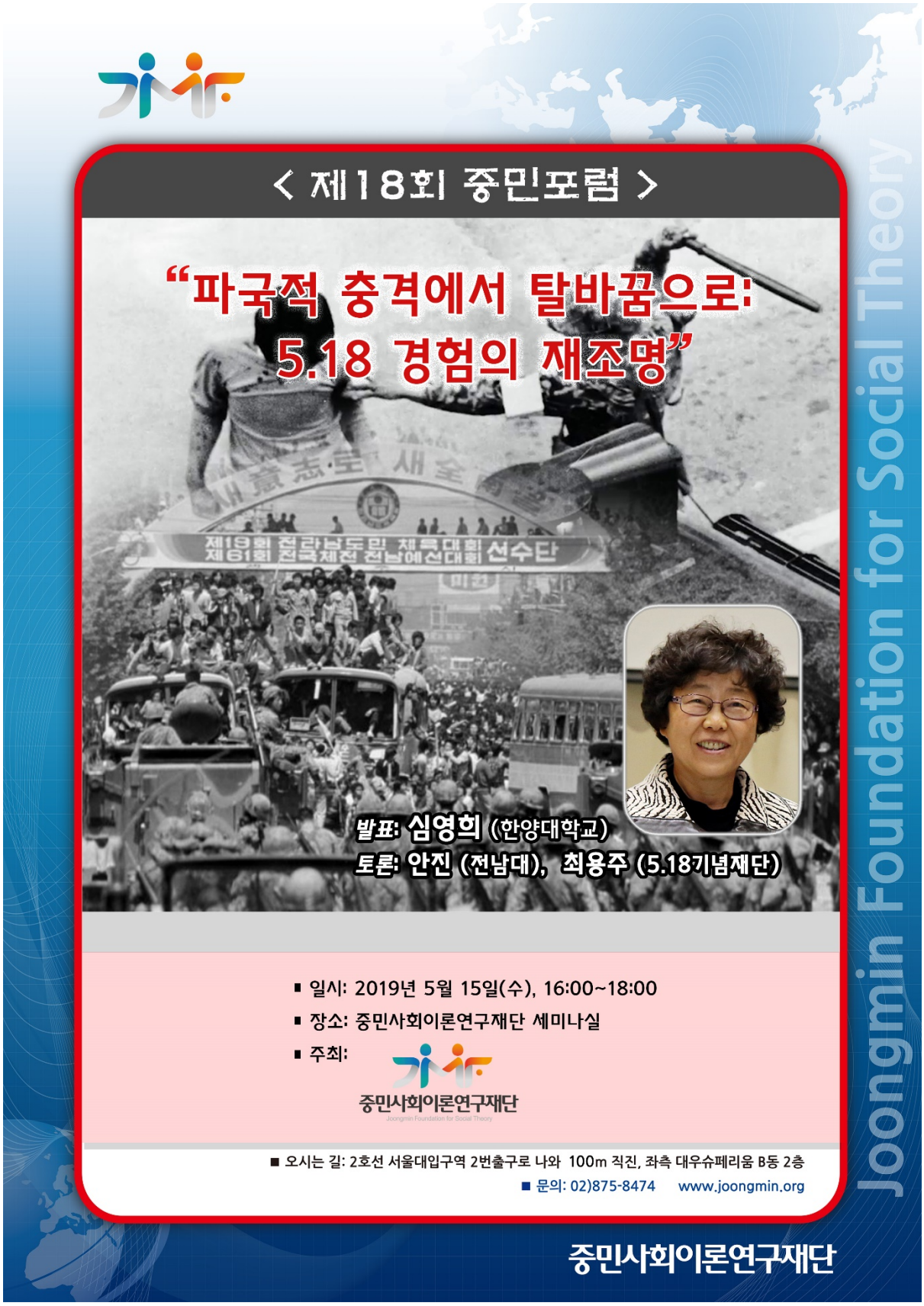


❑ 일시: 2019 년 5 월 15 일(수) 오후 4 시

❑ 장소: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세미나실

❑ 주최: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 포스터


< 제18회 중민포럼 >
"파국적 충격에서 탈바꿈으로:
5.18 경험의 재조명"
제1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제61회 전국체전 전남예선대회 선수단
발표: 심영희 (한양대학교)
토론: 안진 (전남대), 최용주 (5.18기념재단)
■ 일시: 2019년 5월 15일(수), 16:00~18:00
■ 장소: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세미나실
■ 주최: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Joongmin Foundation for Social Theory
■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와 100m 직진, 좌측 대우슈페리움 B동 2층
■ 문의: 02)875-8474 www.joongmin.org
Joongmin Foundation for Social Theory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 파국적 충격에서 탈바꿈으로: 5.18 경험의 재조명

**심 영 희**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오월광주의 10일간의 전개과정에서 이전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의문점 또는 특이성에 기반하여 오월광주를 의도되지 않고 우연히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탈바꿈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어떤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연구질문은 첫째, 오월광주는 어떤 탈바꿈을 거쳐갔는가, 둘째, 그러한 탈바꿈을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이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오월광주는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그리고 공동체광주로 탈바꿈을 하였다고 보았고 둘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벡의 탈바꿈 이론에 기반하여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 파국적 충격, 그리고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개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내면의 탈바꿈을 보면 고통받는 광주의 단계에서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 반신반의, 억울한 마음이었고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감정은 울분과 분노라고 한다면 저항하는 광주에서 공동체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의 감정은 공동체 의식과 이에 기반한 공감과 지지라고 보았다. 5.18 광주의 경험은 이런 희귀한 탈바꿈의 가능성이 실현된 귀중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오월광주, 탈바꿈,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 파국적 충격,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

### 차례

**1. 오월광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

**2. 벡의 해방적 파국과 탈바꿈 이론**

**3. 어떤 탈바꿈이 일어났나? :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 공동체광주로**

**4. 오월광주의 탈바꿈은 어떻게 가능했나? :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 충격과 카타르시스**

**5. 결론**

## 오월광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들

1980년 오월광주는 한편으로 우리역사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학살이라는 매우 아픈 상처이자, 다른 편으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과 민주화 운동으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대 사건이다. 이는 이후의 1980년대의 운동들을 여는 길을 깔았고 이는 결국 한국의 민주화를 가져왔다.[1] 광주 항쟁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투쟁과 민주주의를 위한 한국의 투쟁에 상징이 되었다. 실제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표에 대한 연구를 보면 (Han and Shim, 2018: 280), 전두환 정권시절인 1980년에 0.11이었던 지표가 6월항쟁이 일어난 1987년에는 0.25 다음해인 1988년에는 0.55로 상승했으며 평화적 정권교체가 일어난 1997년에는 0.68, 김대중 대통령 시기인 1999년에는 0.76,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에는 0.78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2]

오월광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졌는데 1980년 발발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하에서는) 극소수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어 "광주사태"라고 불렸고, 광주가, 1988년 4월 1일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이때로부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불린다. 시민운동이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광주민중항쟁" 또는 "광주항쟁" 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여기서는 "오월광주"라고 부르기로 한다. 오월광주는 한편으로는 군부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폭력과 살상이라는 측면이 있고 다른 편으로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이라는 두 가치 측면이 있어서 이 둘다를 다 아우르는 용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80년 오월광주가 일어난지 40주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오월광주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월광주에 대한 자세한 자료 수집 및 기록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한국현대사연구소 1990, 정상용 외) 증언 자료등이 집적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집적되어왔다. 연구의 주제를 보면 오월광주의 의의 (한상진 1999, 2007), 오월광주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려는 시도 (김진균 정근식 2007, 최정기, 2007), 오월광주의 전개과정 (최정운 2012, 최정기, 2007, 안종철, 2007), 오월광주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밝혀내려는 시도 (신기욱, 나간채, Katsiaficas 2009), 법적 처리와 보상 (Park and Han 1995), 후유증 (Shim, 2018)등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

---

[1] 그리하여 2000 년부터 518 기념재단은 항쟁을 기념하여 해마다 뛰어난 인권 옹호자에게 광주인권상을 주고 있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은 2011 년 4 월 25 일에 광주항쟁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물에 등재되었다. (공식 등재이름은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그이후터 광주광역시는 518 아카이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2] 그 이후에는 지표가 다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기인 2008년에는 0.71로, 박근혜 대통령 시기인 2014년에는 0.64로 각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연구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구 관점이 대부분 당시에 유행하던 사회구조적 접근,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한 민중론적 관점 등 특정한 관점을 취한 것이 많았다. 이렇게 볼 때 관점의 다양성이란 점에서 미흡한 느낌이 있다 (최정운 2017, 최정기 2007) 이 연구는 민중 시각이나 목적론적 시각 등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하려고 한다.[3] 그 새로운 관점은 오월광주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가정 위에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518 광주의 의문점들에 기반한 새로운 문제제기에 기반해 있다.

오월광주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관점은 소수이긴 하지만 이미 몇몇 연구에서 지적된 바있다. 최정운 (2017)은 광주연구가 너무나 목적론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언어에 기반한 재구성을 시도했고, 최정기 (2007) 또한 광주를 학살과 저항 두가지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자생적 저항"이라고 보고 접근하고 있다.[4] 필자가 인터뷰한 당시 관련자들도 이런 결과가 나올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 (Shim, 2018). 필자도 80년 광주의 전개과정은 한마디로 뜻하지 않은 방향,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본다. 우연의 연속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군부가 강경진압을 시도했을 때 무엇을 의도했는지 시민들이 목숨 걸고 저항했을 때 이런 결과를 미리 계산하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혁명이라든가 운동은 참여주체들이 처음부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런 의도되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518 광주의 상식적으로 이햐라기 어려운 의문들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의문들이란 진상규명과 관련된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학문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을 뜻한다. 예를 들면 80년 광주는 보통의 진압이나 이에 대한 항의시위에서 볼 수 있는 현상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현상들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데서 오는 의문점들이다. 그 중 핵심적인 몇 가지 의문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찰력이 동원되거나, 계엄하에서는 일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 보통인데, 광주의 경우에는 군대 중에서도 특수부대이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전투에 투입된다는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강수를 두었다는 것이다. 당시 전국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났었고 가장 큰 시위는 광주가 아닌 서울역 앞 시위였었다. 이때에도 경찰력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며칠 후 광주의 시위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강경진압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즉 왜 광주에는 공수부대까지

[3] 여기에서 518 광주 연구는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10일간의 전개과정에 초점을 둔다.

[4] 그러나 최정운 (2017)의 연구는 언어를 통한 재구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최정기 (2007)의 연구는 사회운동론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투입하면서 강경진압을 했나? 하는 문제이다.

둘째, 보통의 시위의 경우 경찰력만으로도 진압이 될 뿐 아니라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경우 아무리 격렬한 시위라고 하더라도 보통 쉽게 진압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매우 격렬한 것으로 알려졌던 1979년 부마항쟁의 경우 공수부대 투입으로 상대적으로 쉽게 진압이 되었다는 예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80년 광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80년 광주의 경우에는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가라앉기는커녕,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서 계엄군이 도시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한 지점이다.

셋째, 광주시민들의 치열한 저항으로 계엄군이 광주시에서 물러난 후 치안공백 상태에서 광주가 보여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다. 보통 도시가 치안공백의 상태가 되면, 이런 경우 일탈행동, 약탈, 방화, 등이 일어난다고 한다. 1973년 뉴욕에서 전기가 나갔을 때 많은 약탈과 파괴 등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80년 광주에서는 계엄군이 물러난 후 광주에 대한 교통 통신 봉쇄로 생활필수품 마저 공급이 끊어진 상태였고 행정력, 경찰력 등의 부재로 치안공백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반대로 시민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며 공동체의 연대를 보였다. 그리하여 저항기간과 해방기간의 광주는 "절대공동체" (최정운 2012)로 규정되면서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모범적인 경우로 논의되기도 했다.

넷째,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광주의 청년과 시민들이 도청사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질문이다. 당시 상황은 계엄군이 일시적으로 물러간 공동체광주의 상태로서 수습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당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수습위원회와 광주시민들은 여러 중요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입장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총기회수도 이미 많이 진행되어 그나마 있던 시민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상태였다. (물론 시민군이 있다고 해서 계엄군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계엄군이 다시 진입해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계엄군의 숫자나 무기나 장비는 광주시민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즉 그냥 목숨을 던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수백명의 광주 청년들과 시민들이 도청사수에 나섰는데 이들은 왜 죽을줄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

이 네 가지 질문중 첫번째 질문은 계엄군의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광주시민의 관점 보다 계엄군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나머지 3개의 질문은 광주시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첫번째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질문들은 518 광주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점들이 존재하며, 또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80년 광주의 전개과정이 한마디로 뜻하지 않은 방향,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연의 연속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월광주를 혁명이나 진화로 보는 결정론적 또는 목적론적 시각을 벗어나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고 이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이런 특이성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역동적인 변화의 흐름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518 광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당시에 유행하던 사회구조적 접근, 사회경제적 조건에 기반한 민중론적 관점 등 특정한 관점을 취한 것이 많았고, 80년 광주가 한국 민주주의에 주는 의미, 원인과 배경, 전개과정, 기여한 역할 등에 초점이 가 있었다. 물론 실제로 장기적으로 보면 80년 광주는 한국에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라는 큰 탈바꿈을 가져온 기폭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최정운 2012, Katsiaficas 2009 등등). 이런 와중에서 518 광주의 과정의 특이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최정운(2017) 최정기(2007)의 연구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 연구는 이런 공백을 메우려는 한 시도이다.

오월광주의 특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탈바꿈이라는 개념과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80년 5월의 오월 항쟁 기간 동안에 국한해 보더라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런 변화는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개되어 일어났기 때문이다. 518 광주는 비록 그 원래의 성격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나비의 탈바꿈처럼 그 모습이 몹시 달라졌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광주의 모습은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그리고 "공동체 광주"로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변신을 거듭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의도된 것이라기 보다 그냥 그렇게 전개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탈바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은 518 광주를 탈바꿈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어떤 탈바꿈의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 어떻게 탈바꿈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Beck의 해방적 파국과 탈바꿈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자료들은 이미 수집된 증언자료 및 기록들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과 이전의 관련된 연구들 (5.18기념재단 1-5권, 2007, 최정운, 2012) 등과 필자가 2017년 10월, 2018년 2월과 6월에 실시한 인터뷰 일부를 참고자료로 이용한다. 80 광주가 어떤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탈바꿈을 했는지 보기 전에 먼저 탈바꿈이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벡의 해방적 파국 및 탈바꿈 이론

탈바꿈이론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이론을 들 수 있다. 하나는 벡 (2015, 2016)의 탈바꿈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주역에 나오는 탈바꿈이론 (Chen, 2008, Legge 1899, Mueller 1965)

이다.[5] 여기에서는 벡의 탈바꿈이론을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벡 (Beck, 2015, 2016)의 탈바꿈 이론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소개된 바 있다 (Han, 2015; Shim, 2015, 2017; 한상진, 2019). 벡에 의하면 탈바꿈 (Verwandlung)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중 과정의 전개이다. 벡의 주장을 요약하면 좋은 것 (예컨대, 산업화와 같은 진보)은 나쁜 것을 낳고, 나쁜 것 (예컨대, 허리케인, 기후변화와 같은 재앙)은 좋은 것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정치를 상상하고 하는 방식에 도전하는데, 예컨대, 그것은 한편으로 "더 성공적일수록, 더 많은 나쁜 것이 생산된다. 나쁜 것의 생산이 근대화 과정의 부수적 피해로서 간과되고 묵살될수록 나쁜 것은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며, 다른 편으로 세상의 탈바꿈은 "글로벌 위험의 숨은 해방적 부수효과"에 관한 것이다 (Beck 2015: 78). 이와 같이 탈바꿈은 사회변동이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며 위기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다. 벡에 의하면 "그것은 변화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양식이다. 그것은 부수효과의 시대를 의미한다.

그러면 해방적 파국은 무엇인가? 벡에 의하면 해방적 파국은 좋은 것의 부정적 부수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의 긍정적 부수효과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것의 규범적 지평을 생산해낸다. 여기에서 추동력은 글로벌 위험이다. 글로벌 위험은 국가적으로는 파괴적일 수 있으나 ("작동하는 제도들이 붕괴") 글로벌하게는 기회 ("새로운 규범적 지평"과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를 만들어낼 수 있다 (Beck 2015 77-78). 벡은 코스모폴리탄적 전환에서 문제의 상식, 역사적 합리성 등은 글로벌 위험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다고 강조했다 (Beck 2015: 85). 그리고 코스모폴리탄화되고 파편화된 세대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은 "글로벌 위험에 의해 생산된 성찰성과 성찰"이라고 했다. 글로벌 위험에 맞닥드렸을 때 즉 인간성에 대한 존재론적 위협과 맞닥드렸을 때, 이 성찰성과 성찰은 만하임이 '생명력' entelechy (Beck 2015: 85) 이라고 부른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6]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해방적

---

[5] 탈바꿈 모델의 또 하나의 문화적 근거로서 주역을 들 수 있다. 주역은 인간 내면과 정치사회 현실 그리고 우주의 질서를 관통하는 다양한 변통 양상의 원리를 집대성한 고전 철학이다(Mueller 1965; Legge, 1899). 특히 계사 하전 2장, 15절에 나오는 궁즉통(窮則通)이 상상력의 보고다. 여기서 궁(窮)은 길이 꽉 막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과 함께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는 실천적 차원을 동시에 갖는다. 통(通)은 막힌 길이 열리는 것을 뜻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행동을 전제하는 개념이다. 즉 변화의 문지방을 끝임 없이 넘나드는 행동으로 막힘이 없는 상태가 통이다. 풀어보자면, 궁즉통(窮則通)은 구조적으로 길이 막힌 답답한 파국 상황에서 길을 찾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드디어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탈바꿈의 객관적인 요인과 주체적 요인이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주역에서 궁즉통(窮則通)의 탈바꿈은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 變則通 , 通則久)의 세 단계로 진행한다. 또는 궁즉통, 통즉변, 변즉구(窮則通, 通則變, 變則久)의 다른 조합을 생각할 수도 있다. '막히면 통하고, 통하면 변화하고, 변화하면 오래 간다'의 뜻이 되겠다.

[6] 벡은 이를 카타르시스라고 불렀으나 한글로 그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여기서는 표출적 패러다임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카타르시스의 의미는 문학에서는 비극을 봄으로써 마음에 남아 있던

파국의 핵심이다.

더 나아가 한상진 (Han, 2015)이 지적했듯이 벡은 2005년 8월 미국 루이지아나 해변을 휩쓸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다룸으로써 행위이론의 무대로 들어서는 결정적 시도를 했다. 이 맥락에서 그는 세가지 개념적 렌즈를 제시했는데 이는 인간 생존이라는 성스러운 (불문률의) 규범의 위반, 파국적 충격[7], 그리고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이다 (Beck 2015: 79). 여기에서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은 글로벌 위험 또는 참사 재앙으로서 예를 들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성노예제. 오월광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파국적 충격은 참사, 재앙 또는 글로벌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이다.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은 "더는 안 돼"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으로서 정부의 위험관리 비판, 코스모폴리탄적 심성과 연대의 등장을 가리킨다. 이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해방적 파국과 탈바꿈의 이론적 개념의 설명**

| 이론적 개념 | 설 명 |
|---|---|
| 성스러운 규범의 침해 | 글로벌 위험 또는 참사, 재앙<br>(예. 허리케인 카트리나, 성노예제, 오월광주) |
| 파국적 충격 | 참사, 재앙 또는 글로벌 위험에 대한 인지 |
|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 | 패러다임 전환, "더는 안 돼," 정부의 위험관리 비판, 코스모폴리탄적 심성과 연대<br>(예. 국내 및 국제적 대응에 대한 평가 및/또는 필요성) |
| 행위/운동 | 코스모폴리탄적 심성과 연대에 기반한 위험 행위자 Risk Actors 들의 행동 |

한상진(2015: 117)은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험적 명제를 만들었다. 즉 "인간 생존과 정의의 규범을 파괴하는 재앙에 의해 더 깊은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코스모폴리탄적 심성과 연대를 위한 에너지는 더 커진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파국적 충격은 추동력으로서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이고,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은 코스모폴리탄적 행위와 운동 쪽으로 끌어당기는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상진은 벡이 이런 식으로 "자아비판적인 세계위험

---

우울감, 불안감, 긴장감 따위가 해소되고 마음이 정화되는 일을 가리키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는마음 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벗어나 행동을 통하여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의 안정을 찾는 일을 뜻한다. 벡은 '사회적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이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표출적 패러다임 패러다임 전환'으로 바꾸어 부르기로 한다.

[7] 벡은 이를 파국적 충격이라고 불렀으나 한글로 그 의미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여기서는 파국적 충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사회의 규범적 지평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옹호하며 이는 확신과 가치판단의 면에서 보는 규범적 접근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국적 충격은 자동적으로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이나 코스모폴리탄적 심성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작업"이 필요하다. 쿠라자와 (Kurasawa, 2007)에 의하면 "그러나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사건 자체에 의해 본질적으로 결과되는 어떤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문화적 작업', '의미작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전달자 carriers 집단의 산물이다. 즉 타자의 (먼) 고통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운동가의 변화적 작업의 산물이다" (Kurasawa, 2007). 이것은 벡이 언급한 "의미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벡에 의하면 (2015:81) "이 의미작업은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즉 위협의 성격이 무엇인가? 죽음인가, 건강인가, 경제적 붕괴인가, 도덕적 황폐인가? 누가 피해자인가? 관련된 대중들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가? 누가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공동체와 개인들, 조직들은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건 간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의미작업은 파국적 충격을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끌어당기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해방적 파국과 탈바꿈의 개념들은 비록 매우 계몽적이고 놀랄만한 것이긴 하지만, 분석적 설명적 틀로서 충분히 명백하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다. 벡은 이 이론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경우를 분석한 적이 있고 (Beck, 2015:79-80), 필자는 이 이론을 한국의 국제결혼의 경우와 (Shim 2015) '위안부' 문제 (Shim, 2017)에 적용해본 바 있다. 이에 기반하여 이번 필자의 분석 사례인 오월광주의 경우에도 적용해보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해방적 파국의 추동력을 밀어내는 요인과 끌어당기는 요인들로 구성된 것으로 체계화하고 이 분석적 틀을 518당시 광주의 변화라는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즉 오월광주에 작용하는 재앙적 밀어내는 요인과 해방적 끌어당기는 요인 둘다를 포괄하고자 한다.

## 분석적 틀

벡의 해방적 파국과 탈바꿈의 이론을 적용하는데 있어 오월광주의 변화를 위한 필자의 분석적 틀은 다음과 같다. 즉 오월광주의 전개과정을 보면 광주는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를 거쳐 공동체광주로 탈바꿈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고통받는 광주는 마구 짓밟히는 애벌레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짧지만) 폭력 앞에 두문불출 꼼짝 못하는 저항 이전의 광주는 고치 단계로, 충격을 받고 저항하는 광주와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새로 태어난 공동체광주는 나비 단계로 볼 수 있다.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탈바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무자비한 강경진압을 통한 살상이라는 파국적 충격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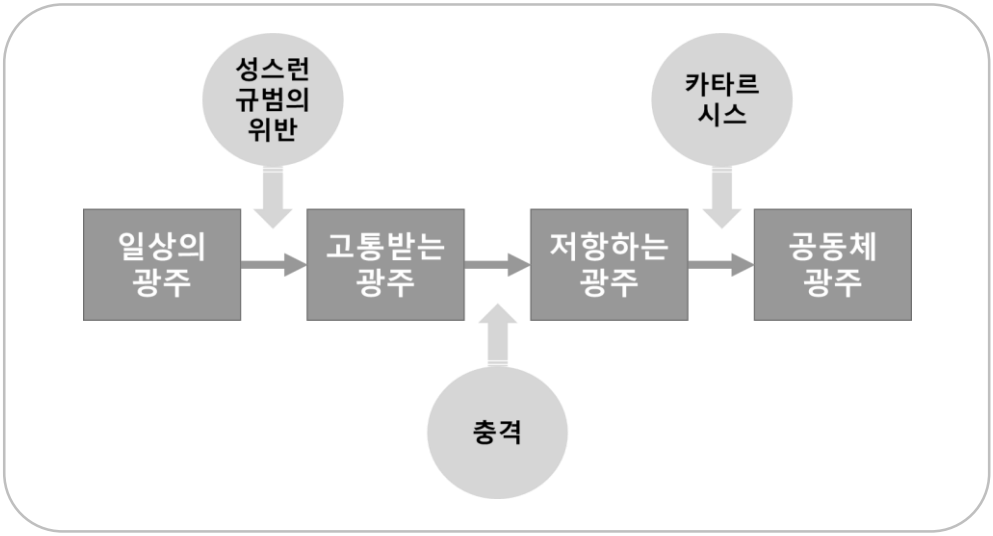
는 메커니즘을 통해 저항을 불러오고 다른 편으로 저항을 통해 패러다임 전환과 공동체 의식이라는 카타르시스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탈바꿈이 의도된 사회적 변동으로서가 아니라 '강경진압"의 부수효과로서, 의도되지 않은 변화, 즉 탈바꿈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80년 광주가 겪었던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과 폭력은 성스러운 규범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적군도 아니고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도 이유없이 마구잡이로 진압봉으로 구타당하고 대검에 찔리고 집단 발포로 총에 맞아 쓰러졌으며 그들의 생명은 계엄군의 수중에 있었다. 비록 그들이 폭력에 분노하거나 저항하더라도 이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그들은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인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탈바꿈의 이론에 의하면 성스러운 규범의 침해 또는 재앙은 파국적 충격을 불러온다. 80년 광주의 경우에 성스러운 규범의 침해가 일어났을 때 당시의 광주시민들이 받은 파국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국적 충격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어찌할 줄 몰랐겠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학살이라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두려움이 분노로 변하면서 똘똘 뭉쳐 목숨을 걸고 저항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이 잠시나마 계엄군을 물러나게 했다.

그리고 저항을 하면서 부정적 추동력을 넘어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긍정적 기운과 도덕적 정당성을 얻고 함께 하는 동료들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카타르시스 또는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이다. 이 설명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다음 그림 1이다.

**<그림 1> 오월광주의 단계별 탈바꿈과 메커니즘**



## 어떤 탈바꿈이 일어났나? :
##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 공동체 광주로

위에서 오월광주는 탈바꿈이라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광주의 의도하지 않은 변신을 언급했다.[8] 그러면 80년 광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탈바꿈이 일어났나? 이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통받는 광주", 둘째, "저항하는 광주", 셋째, "공동체 광주"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먼저 "고통받는 광주"는 계엄군, 특히 무섭기로 악명높은 공수부대의 강경진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마구 짓밟히고 꼼짝 못하며 고통받는 단계의 광주이다. 두번째 단계는 "저항하는 광주"이다. 이 단계는 궁즉변의 단계로서 더 이상 잔인할 수 없는 강경진압에 "이러다 다 몰살당하겠다". "다같이 죽자" 하며 목숨 걸고 저항하는 광주이다. 더 이상 물러설 데 없는 최악의 막다른 단계까지 내몰려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온갖 시도를 다 해보는 단계이다. 처음에 산발적 시위로 시작해서 점차 조직적 공세적 시위로 넘어가고 차량시위까지 하게 되며 총 앞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세번째 단계는 "공동체 광주"이다. 이 단계는 변즉통의 단계로서 막다른 단계에서의 목숨 건 저항, 억울함과 울분이 불러온 공감대, 광주 봉쇄가 불러온 단결을 통해 조직적 공세적 저항을 하고 이를 통해 계엄군이 철수하게 만들고 단기간이지만 "절대 공동체" (최정운, 2012)를 만든 단계이다. 비록 "공동체 기간"은 모라토리움 같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상호존중과 상호 배려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으로 인권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한 기간으로, 국가폭력 없고 왜곡과 마타도어 없는 민주적 공동체를 자율적으로 이룬 기간이다. 이 세 단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 고통받는 광주

이 기간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1일 정도까지의 기간으로서 공수부대의 투입으로 고통받는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학생시위에는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이 보통이고 격렬한 시위의 경우에도 공수부대는 커녕 군대가 동원되는 경우는 드물었다.[9] 그리고 80년 광주 518

[8] 탈바꿈의 예로서는 알에서 애벌레 고치를 통하여 나비가 되는 나비를 들 서있다. 탈바꿈은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사회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개인의 경우 대체로 큰 사건 사고로 충격을 겪은 후에 사람이 완전히 딴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사회의 경우 오랜 농경생활 후 러다이트 (Luddite) (주: 19세기 산업혁명 때 네드 러드(Ned Lud)의 주도로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고 믿고 공장과 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 운동에서 나온 말) 운동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사례, 오랜 군주제 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민주화가 일어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9]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항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시위 때 모두 진압을 위하여 경찰력이 동원되었고, 공수부대가 동원된 경우는 1979년 10월 부마항쟁, 1980년 5월 광주 항쟁 당시 뿐이었다.

직전인 1980년 5월 13일과 14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37개 대학에서 계엄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5월 15일 서울역 앞에서 발생한 대규모 학생시위에도 경찰력이 동원되었다. 공수부대는 낙하산 헬리콥터 수송기 등으로 공수낙하하여 전술전략상의 요지를 기습점령하여 지상부대와 협동하고 작전 전반에 기여하는 특수부대로서, 전투의 경우에도 일반 전투가 아니라 매우 특수하고 험난한 전투의 경우에 동원되는 특전단으로서 일반 학생들의 시위진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된 것이다. 공수부대는 악랄하기로 소문나 있어서 그 이름만 들어도 모두들 두려움에 떠는 존재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이 떠 오른다. 첫째, 왜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그토록 무자비한 강경진압을 했나?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강경진압을 했으며,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 셋째,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등이다.

먼저 왜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서 강경진압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주항쟁 이전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경우는 1979년 부마항쟁의 경우가 유일했다[10]. 부마항쟁의 경우 저항이 치열했으나 공수부대를 투입함으로써 초기에 강경진압하여 결국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경우에도 짐작컨대 초기 강경진압의 성공이라는 이 경험에 기반하여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약하게 대응하다가 시위가 확산되거나 커지기라도 하면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데다가 시위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여론도 나빠질 거라는 예상에 그렇게 하기보다 초기에 강경대응해서 아예 시위 확산의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여기에 깔려 있다. 왜 광주였나 라는 질문에는 보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11]

둘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강경진압 방법을 썼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위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공포스러운 진압 방식을 써서 시위대에게 겁을 주어 시위를 포기하게 하는 방식이 선호된 것 같다. 당시의 진압 방식을 보면 공수부대 라는 특전단 투입으로 시위대에게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방식을 썼음이 분명하다. 혹자는 이들의 진압방식을 "전시폭력" 또는 "극장폭력"이라고 부르기도 했다(최정운, 2012). 시위대뿐만 아니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시위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 없애겠다는 시도인 것 같았다. 시위대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

[10] **부마민주항쟁**(釜馬民主抗爭) 또는 **부마민중항쟁**(釜馬民衆抗爭)은 1979 년 10 월 16 일부터 10 월 20 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유신 체제에 대항한 항쟁을 말한다. 10 월 16 일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철폐"의 구호와 함께 시위를 시작했다. 다음날인 17 일부터 시민 계층으로 확산된 것을 시작으로 해서, 18 일과 19 일에는 마산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됐다.[1] 당시 박정희 유신 정권은 10 월 18 일 0 시를 기해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66 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했으며, 10 월 20 일 정오 마산 및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을 출동시킨 후 민간인 59 명을 군사재판에 회부했다. 당시 참여인원은 1 만명 이상, 체포자수는 1058 명, 구금자수는 125 명에 달했다고 한다.(wikipedia ).

[11] 이에 대해서는 안진 2007 참조.

하여 집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겁을 주었으며, 특수 제작된 곤봉[12]으로 머리 부위를 조준 가격하여 치명타를 입히고 (원래 시위진압에서는 머리 부위는 가격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대검을 장착하여 찔렀으며, 나중에는 집단발포로 총까지 쏘았다. 또한 물리적 폭력행사외데도 옷을 벗기고 두 팔을 머리 위에 얹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모멸감을 주었다. 그 결과 시민들의 피해는 유례없을 정도로 컸다. 통계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위키피디아, 518 재단; https://ko.wikipedia.org/wiki/5·18_광주_민주화_운동 2019년 1월 8일 접근)

셋째,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였다. 학생운동의 리더들과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들은 미리 단행된 예비검속으로 전날 이미 잡혀갔거나 피신을 한 상황이어서 학생이나 시민들을 이끌어줄 지도부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계엄령 확대로 대학이 휴교가 되면 학교 교문에서 만나자는 약속에 따라 교문 앞에 모였으나 조직적 시위를 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산발적 비조직적 시위를 이어갔다. 시민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너무 무서워서 집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두문불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계엄령하의 보도통제하에 있어서 광주의 실상에 대한 보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진실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정부의 왜곡된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였고, "빨갱이"라는 낙인마저 찍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럴 수는 없다" "이러다 몰살당하겠다". "우리 세금으로 휴전선 지키라고 한 국군이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눈다." "우리가 국민 맞나?" "우리가 인간 맞나?"라는 극도의 불안과 자조감이 일어나면서 저항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 저항하는 광주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무차별 강경진압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던 광주는 어느 순간 두려움을 털고 일어나서 저항하기 시작했다. 고통받는 광주가 저항하는 광주로 변하는 데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부마항쟁에서 저항이 무너진 것도 결국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각자도생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광주는 어떻게 극도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뭉쳐서 저항할 수 있게 되었나? 설명의 키워드는 궁즉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내려가 버렸을 때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월 18일 계엄군은 7공수 2개대대 688명을 광주에 투입했고 19일은 거기에다가 11공수 3개대대 1200명을 더 투입했으면 20일은 3공수 5개 대대 1392명을 투입하여 도합 3290명의 공수부

[12] 이 특수제작된 곤봉은 박달나무로 만든 것으로 일반 곤봉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무거웠다.

대를 투입했다. 적군과의 전투도 아닌 하물며 무기도 없는 시민들의 시위진압에 이런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은 모두 죽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공수부대가 증강되고 강경진압에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을 목격하는 시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눈앞에서 옷을 벗기운 채 팬티만 입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곤봉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고 대검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총에 맞아 죽은 시신아 발견되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생각은 점점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13] 진압봉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거나 대검에 찔려 쓰러지거나 총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을 보고 시위대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시위도 점차 공세적 조직적 시위로 바뀌어 갔다. 시민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대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공수부대는 부마항쟁 사례만 생각하고 무자비한 강경진압을 실행했겠지만 이는 뜻하지 않게 역효과를 불러온 셈이다.

## 공동체 광주

공수부대의 만행과 이에 대한 저항의 과정은 광주시민들 사이에 계급을 뛰어넘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킴으로서 광주를 공동체 광주로 변모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많은 광주시민들이 몰살당할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공동운명체로 하나가 되어 너나할 것 없이 시위에 참여하거나 응원했고, 밥을 지어 시위대에게 제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계엄군이 광주에서 물러나면서 그들이 장악했던 행정권과 사법권이 모두 사라짐에 따라 광주가 치안 공백 상태가 되었을때, 악몽 같은 강경진압을 겪은 광주시민들은 예상 밖으로 배려와 존중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보통 치안 공백 상태가 되면 도시가 약탈과 폭력, 방화 등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광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밥을 지어 나누어주고 생필품을 서로 나누며 치안을 유지했다.

가족과 친구 이웃의 죽음과 부상이라는 엄청난 비극 속에서 시련과 트라우마를 겪은 그들은 분노와 복수심에 차서 파괴와 약탈을 했을 수도 있다. 히스테리를 부리고 종말론적으로 파괴적으로 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차분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잠시동안이지만 서로를 폭도나 빨갱이가 아닌 인간으로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승리감에 젖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기반이 되어 마지막 도청 사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14] 마지막 도청 사수에 참여하기로 한

[13] 최정운(2012)은 두려움에서 수치심으로 다시 분노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14] 도청 수습위 기간동안에 광주시민들간에 의견이 분열되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최정운 2012), 도청사수는 이런 분열과 갈등을 초월하여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이었

광주학생들과 시민들의 마음 저 밑바닥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속에서 자신들을 믿어주고 지켜준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표 2> 오월광주 의 3단계 탈바꿈**

| | 고통받는 광주 | 저항하는 광주 | 공동체 광주 |
|---|---|---|---|
| 기간 | 1980.5.18-21 | 1980.5.18-21 | 1980,5.22-26 |
| 진압대상 및 방법 | 7 공수 2 개대대 688 명 공수부대 투입<br>곤봉 대검으로 마구 때리고 찌르고 진압<br>시위대 아닌 지나가는 사람도 진압 | 공수부대 증강<br>11 공수 3 개대대 1200 명<br>3 공수 5 개 대대 1392 명<br>합 3290 명<br>집단발포 총사용 | 공수부대 물러감 |
| 언론통제 | 일방적 보도통제 | 일방적 보도통제<br>진실은폐 왜곡<br>폭도 빨갱이라는 낙인 | 일방적 보도통제<br>진실은폐 왜곡<br>폭도 빨갱이라는 낙인 |
| 고립작전 | | 교통 및 통신단절 | 교통 및 통신단절<br>생필품 등 물자공급 중단<br>광주 고립 |
| 시민반응 | 처음엔 무서워서 두문불출 | 총 맞고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 보고 시위대에 합류 | 검경 작동 못하는데도 치안유지<br>상호 배려 존중하는 사회 |
| 시위 | 학생중심<br>산발적 비조직적 시위 | 시민 참여 점차 공세적 조직적 시위 | 성토대회 등 집회 |

## 오월광주의 탈바꿈은 어떻게 가능했나? :
##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 충격 및 카타르시스

위에서 광주는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그리고 공동체 광주로 탈바꿈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면 광주가 공수부대의 강경 진압과 학살에도 항복하지 않고 버티고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강경 진압이 그것도 국가폭력이 극도로 잔혹하게 진행되면 저항은 대부분 무너지거나 항복하게 마련

다고 볼 수 있다. 이 글 뒷부분 참조.

이다. 부마항쟁이 그 예이다. 왜 광주는 이런 지독한 강경진압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이것은 몇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독한 강경진압, 이런 무자비한 진압에 따른 극심한 충격,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와 정체성변화를 수반하는 카타르시스가 그것이다. 공동체성과 저항성을 지닌 광주의 특수성[15], 등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논외로 하기로 한다.

## 성스런 규범의 위반: 인간생존의 규범 파괴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은 인간 생존과 정의의 규범을 파괴하는 재앙[16]을 가리킨다. 성스런 규범의 파괴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위협하거나 위반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허리케인 카트리나, 성노예제, 후쿠시마 사고 등과 같은 글로벌 위험 또는 참사, 재앙이다. 한마디로 종말론적 재앙apocalyptic catastrophe에 해당할만한 엄청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은 일상의 광주에 시위진압을 위해 평소와 다른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무자비한 강경진압을 함으로써 광주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단계에서 작동한다.

80 광주에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규범이 위협을 받거나 위반되었고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었다. 오월광주가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이 있었고 "광주학살", "인간사냥", 등으로 불린다는 것 자체가 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무자비한 강경진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했으며, 사람들을 옷을 벗겨서 때리고 전시했으며 광주를 봉쇄해서 고립시킴으로써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교류를 막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월광주는 이에 해당하는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518 광주를 호명하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시 국내 언론들은 보도를 못하거나 군부의 통제 아래에 있어서 왜곡보도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제대로 보도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외신기자들에 의해 진실보도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외신 보도에서는 "광주학살"이라고 불렀던 데서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알 수 있다. 80오월 당시 프랑스에서 보도된 "뉴스를 접한 프랑스인들의 반응 중 하나가 '광주 사람들은 소수민족인가, 이교도들인가?'였다. 그들의 눈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두 손을 뒤로 묶여 굴비처럼 엮이고,

[15] 광주의 역사적 특수성—저항정신 (일제시 학생운동), 공동체 정신, 용기 저항—에 대해서는 강만길 2007 참조.

[16] 이는 1948 년의 세계인권선언에도 나타나 있다. 그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제 1 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팬티 바람으로 트럭에 끌려가고, 마구 쏜 총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일반 시민일 수 없었다. 그보다는 한나 아렌트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로 칭한 '파리아'들에 가까운 존재들이었다". (홍세화, 2019).

학계 일부에서는 "양민학살" 또는 "제노사이드"라고 명명하는 학자도 있다. 최정기(2007b: 79)에 의하면 "첫째, 시위와 무관한 양민학살과 잔인한 진압, 둘째,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발포, 셋째, 성폭력 등 여성들에 대한 잔인한 행위, 넷째, 연행과 구금과정의 잔인한 행위" 등을 들면서 518 당시의 민간인 살상이나 계엄군의 진압방식 및 그 과정은 양민학살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한 당시 충정작전의 특징, 군의 진압장비, 사망자의 사인별 분포와 부상자의 날짜별 부상자수를 살펴보면서 이를 뒷받침하려고 했다. 오월광주의 피해상황은 최근의 공식적 통계에 의하면 사망 240명 실종 409명 부상 2053명으로 나타난다 (518기념재단)[17]

518 광주에 대한 재평가는1987년 6월항쟁과 대통령 직접선거 재도입이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1988년에 국회는 광주항쟁 청문회를 열었고 이를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공식적으로 재명명했다. 1990년 8월에는 광주민주화관련자 보상법이 만들어졌다. 1995년에는 여론의 압력이 상승함에 따라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 12.12쿠데타 책임자들의 기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1996년에 8명의 정치인이 내란과 학살로 기소되었다. 이들의 처벌은 1997년에 마무리 되었는데 전두환에게 사형선고(후에 종신형으로 바뀜), 전의 계승자이자 동료 참여자였던 노태우에게 종신형 등이다. 그러나 모든 범죄자들은 1997년 12월 22일 국가 화해라는 이름하에 사면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당시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김대중의 자문이 있었다. 1997년에 5월 18일은 공식 추모일로 선언되었다. 2002년에는 유족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 (2001 광주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효력을 발효되었고 망월동 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항쟁의 억압에서 정부의 역할이 있었는지 재조사하겠다고 선언했고 2018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이 제정되었다.[18] 2018년 2월에 군이 공격용 헬리콥터를 사용해 시민들에게 발포했다는 것이 최초로 밝혀졌고, 2018년 11월7일 정경두 국방장관은 항쟁 진압과정에서 군부의 역할이 있었다는데 사과하고 군인들의 성

[17] 1980 년 광주항쟁에 대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사망자 통계는 없다. 계엄군 사령부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사망자는 민간인 144 명 군인 22 명 경찰 4 명이었고, 부상자는 민간인 127 명, 군인 109 명, 경찰 144 명이었다. 518 유족회에 의하면 5 월 18 일과 27 일 사이에 적어도 165 명이 죽었고 76 며이 실종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송암동 계엄군간 오발사고로 죽은 13 명의 군인을 포함 23 명의 군인과 4 명의 경찰이 항쟁기간동안 죽었다고 했다. 공식통계는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신보고와 전두환 정부 비판자들에 기반하여 실제 사망은 1000 에서 2000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18] 그러나 이 법에 기반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계속 미루어졌고 최근에는 적합하지 않은 위원 추천으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함으로써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비록 오월광주에 대한 재규정과 보상이 1990년과 2001년에 각각 이루어졌지만 잔인한 폭력의 일부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생존자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 시민들이 아직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 세 가지의 파국적 충격: 두려움에서 분노로 부정적인 에너지 폭발

파국적 충격은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질문은 강경 진압과정에서 어떻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게 되었나? 하는 것이다. 물론 초기 진압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군대가 왜 이런 무자비한 탄압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며 두문불출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두들 몰려나와 목숨을 건 저항을 하게 되었다. 왜 뿔뿔이 헤어져 숨거나 살길 찾지 아니하고 나와서 연대를 이루어 저항했는가? 왜 부마항쟁처럼 진압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는가? 무엇이 다른가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점은 그들에게 용기와 힘과 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초기에 강경진압을 해서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이후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없애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마사태에서도 초기 강경진압을 목표로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이것이 먹혀서 진압에 성공한 케이스이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광주의 경우에도 초기에 강경진압으로 겁을 주어서 시위의 싹을 자르려고 했으나 광주의 경우에는 진압이 성공하지 못했다. 왜 그러한가? 이는 무엇보다도 강경진압이 준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추락할래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파국적 충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강경진압과 폭력으로 인한 충격, 둘째는 진실 은폐와 왜곡으로 인한 충격, 셋째는 광주 봉쇄와 광주 고립의 충격이다.

### 1)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강경진압의 충격: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맞나?”

첫번째 충격은 강경진압으로 인한 신체적 폭력과 살상의 충격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이러한 충격은 유언비어로 소문으로 또는 현장목격으로 드러났다.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러 왔다”는 소문 또는 유언비어는 광주시민들의 공포와 동시에 분노를 자

극하는 것이었다. 시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임신부의 배를 가르고 여성의 유방을 잘랐다는 소문 또한 극단적인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더구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사람을 개 패듯 팼다"라는 목격담이 한 예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함부로 대했다." "우리를 국민 취급하지 않았다." "우리를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등등. 이처럼 광주의 경우 신체적 폭력에 대한 충격이 극에 달했다. 특수제작된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대검을 장착하여 찌르고 총을 쏘고, 집단발표까지 하고 등등 더구나 옷을 벗기고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뻗쳐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수모와 비하의 의례를 강제하는 등 인간 이하의 굴욕감을 주는 행위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준 것이다.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시위를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그것이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공포심을 넘어 분노를 불러일으켜 저항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186) 등의 책에 보면 "분노가 공포심의 임계점을 넘어서자 생존본능이 거대한 집단적 공명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이 바로 강경진압의 충격이 너무 커서 다시 반등하게 되는 계기로 보인다. "이럴 수는 없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건 국민에게 할 짓이 아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러다 다 죽겠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겠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싸워나 보고 죽자" 같은 말들이 이런 충격의 반등 효과를 보여주는 말들이다.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에 광주시민들은 자신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국민으로도 인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휴전선 지키라고 했더니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다니..." "세무서도 필요 없다. 불질러 버리자"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181) 와 같이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배신감, 광주사람들이 "전부 몰살당할 것 같다"는 인간으로서의 생존본능에 대한 극도의 위기감이 사람들을 덮쳤다. 한 마디로 그들은 "기가 막혀버렸다." 이처럼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르게 되자 광주 시민에게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몰살당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무엇이라도 해볼 것이냐 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민의 선택은 후자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목격한 충격은 많은 시민들에게 계급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공포는 한편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 (부마사태)의 길을 모색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불러 일으켜서 저항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무자비한 진압현장을 목격하고 엄청난 분노를 느껴서 그 자리에서 시위대에 동참한 경우들이 많다. 이는 특히 젊은 층, 노동자 등 하층 집단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이러한 충격에 대한 반응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

에는 소수의 학생들의 시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많은 광주시민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위에서 "인간생존과 정의의 규범을 파괴하는 재앙에 의해 더 깊은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코스모폴리탄적 심성과 연대를 위한 에너지는 더 커진다" 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 누가 더 깊은 충격을 더 받았나? 누가 이런 무자비한 폭력에 더 열성적으로 저항했을까? 누가 먼저 저항에 참여하고 누가 나중에 참여했을까?

여기에는 계급 지위별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거나 집으로 돌아가서 두문불출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중산층의 경우에는 자신은 물론 자녀도 또한 밖에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거나 대피시키는 집들도 많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렇게 도망친 자신에 대해 수치감을 느끼고 다시 나가 시위대에 동참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최정운, 2018). 이와 대조적으로 젊은층, 학생, 노동자 등 하층 집단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무자비한 진압현장을 목격하고 엄청난 분노를 느껴서 그 자리에서 시위대에 동참한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 2) 진실 은폐와 왜곡의 충격: "우리가 폭도라고?"

두번째 충격은 진실 은폐와 왜곡의 충격이다. 당시 각종 유언비어와 루머가 창궐했는데, 그 중 일부는 광주시민들의 민심을 흔들기 위해 나온 것들도 있고, 군부가 외부에 광주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것들도 있으며 출처가 어딘지 불명확한 것들도 있다. 먼저 광주시민의 민심을 흔들기 위해 나온 유언비어는 다음과 같다.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 사람 씨를 말리려고 왔다." "군인들이 잔인하게 진압하도록 약물을 투여해서 진압 현장에 내보냈다." 등이다. 이는 광주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퍼뜨렸다고 추측되는데 광주시민들이 들으면 오싹 소름이 끼칠 말들이었다.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출처가 불명확한 소문들이 난무했는데 예컨대, "집집마다 수색을 해서 시위대를 찾는다더라." "여고생의 젖가슴을 베었다더라"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더라" 등 마치 목격자가 있는 것 같은 유언비어가 떠돌아 많은 시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다.

다음으로 군부가 외부에 광주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말들은 다음과 같다. 광주사태가 터진 후에도 군부는 한동안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보도 통제를 하여 진실을 은폐하였다. 광주시민들이 공수부대의 엄청난 폭력앞에 살상을 당하고 있는데도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를 알 수가 없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해외매체를 통해서 광주사태가 알려진 후에는 "광주사태는 폭도들이 일으킨 것이다." "광주사태는 빨갱이들이 일으킨 것이다" 라고 왜곡 보도를 내보내게 한 것이다. 광주시민을 "폭도"나 "빨갱이"로 몬 왜곡은 무자비한 강경진압의 폭력과 살상만큼, 아니 그보다 더 광주시민들을 울분과 분노에 떨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후로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광

주사람들을 괴롭혔다.

### 3) 광주 봉쇄와 고립의 충격: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다"[19]

세번째 충격은 광주봉쇄와 고립의 충격이다.[20] 5월 21일 자정을 계기로 광주시내의 모든 전화가 끊어졌고 시외버스와 열차 등 교통편도 전남 지역 외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모두 끊어졌다. 교통이 끊어짐에 따라 생활필수품 등 물자보급 또한 끊어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것은 이런 저항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마도 외부 지원 가능성 봉쇄로 광주가 절망에 빠지거나 포기하게 할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위에서 제기한 첫번째 문제, 즉 왜 광주인가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강경진압은 처음부터 광주를 대상으로 하였고 광주시민이 이에 반응한 것으로서 지역적 색채가 있었다. 이것은 혐오의 공급과 수용이라는 정치경제학을 통해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혐오의 공급과 수용에 대한 모델을 내놓은 에드워드 글레이저(Glaeser, 2005)에 의하면 정치꾼들이 상대 정파를 공격하는 흔한 방법은 그들의 정책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혐오의 공급). 정치꾼이란 직업정치인뿐 아니라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치지망생, 선정적 미디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때 그 부추기는 이야기가 사실일 필요는 없다. 나치의 선전상 괴벨스가 말했듯이, 선동의 효과는 진실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를 알기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반복될수록 더 많이 받아들인다 (혐오의 수용). (장덕진, 2018)

어쨌든 이런 봉쇄는 두가지 효과를 낳은 것 같다. 한편으로는 광주가 외부로부터 도움이나 지원을 받을 기회를 봉쇄했고 이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18 광주의 실상이 국내 타지역이나 외국에 알려지는 것을 많이 막았고, 광주인들을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고립시키는데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래 간 듯하다. 지금도 많은 광주인들은 518 광주가 전국적인 잇슈가 되지 못하고 광주지역에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이 518 광주를 세계적인 잇슈로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21] 다른 편으로 외부로부터 차단됨으로써 오히려 내부에서 뭉치는 길밖에 남겨놓지 않음으로써 광주시민들을 운명공동체로 뭉치게 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몰살당해도 아무도 모르겠다." "우리끼리 뭉치는 수밖에" 라는 반응이 그것이다.

---

[19] 이 표현은 임철우의 소설 <봄날> (2015 문학과 지성사)에서 따온 것임. 헌사 원문은 "끝내 아무도 달려와 주지 않았던 그 봄날 열흘, 어 잊혀진 도시를 위하여 이 기록을 바친다:"라고 되어 있다.

[20] 계엄군이 교통 및 통신 단절 등으로 광주를 봉쇄하여 광주가 고립되자 광주는 더 이상 외부로 도피할 수도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다. 심지어 먹을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조차 조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예기치 않은 단결을 불러왔다.

[21] 2017년 10월에 필자가 광주 피해자와 했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다.

##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22]: 분노에서 공감과 지지로 패러다임 변화

위에서 파국적 충격이 자동적으로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며 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패러다임 변화가 생기려면 타자의 고통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운동가 또는 전달자 행위자가 의미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협의 성격이 무엇인가? 죽음인가? 건강인가? 경제적 붕괴인가? 누가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벡은 이것을 당사자가 아니라 글로벌 공동체와 개인들 조직들이 할 일이라고 보았다.[23] 그러나 오월광주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단기간에 일어났고 해외 매체 이외에는 제3의 운동가나 행위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자도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518 광주의 경우에 의미작업을 한 주 전달자는 당사자 중 일부 지식인과 해외 매체를 들 수 있다. 이중 해외 매체는 보도통제로 인하여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지 못한 광주의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단기적으로는 당시의 518 광주의 당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등 시민들의 오월광주의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장에서의 의미작업은 당시의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속에서 광주시민들을 참여로 끌어당기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을 그 전달자와 내용이라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전달자의 측면에서는1) 투사회보와 궐기대회 등 전달자의 역할을, 내용의 측면에서는 2) 위협의 성격이 무엇인가? 3)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책임이 있는가? 4) 이에 대한 대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등을 논의하겠다.

### 1) 의미작업의 주체들: 광주시민들 당사자, 시위, 투사회보와 궐기대회 등의 역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오월광주의 경우에는 이 사건이 단기간에 일어났고 해외 매체 이외에는 제3의 운동가나 행위자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보도통제가 되었고 광주시민들만이 직접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외에 제3자의 설명이나 매개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사건이 폭도들에 의한 난동이 아니라 공수부대의 난동 같은 강경진압에 광주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 애를 썼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군부의 언론통제와 광주의 봉쇄로 기존의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이 처한 상황,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 억울하게 덮어씌워진 "폭도"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벗어 던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 텔레비전 등 국내 언론이 계엄군

[22] 사회적 카타르시스를 이렇게 표현하였다.

[23] 이 논문 다음에 나올 후속 논문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의 통제하에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언론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연 보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24] 더욱이 당시에는 휴대폰, SNS도 없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은 외신기자와 광주 시민들뿐이었다. 이중 해외 매체는 국내 언론에서 보도되지 못한 광주의 진실을 보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단기적으로는 당시의 518 광주의 당사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등 시민들의 오월광주의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가 봉쇄된 상태여서 외신 기자들도 극히 일부 외에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소수 이기는 하지만 일부 외신기자들은[25] 위험을 무릅쓰고 오월광주의 진실을 외부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광주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다. 언론이 통제되고 광주가 고립된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가 어려웠고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518 광주 초기에는 언론통제로 이를 보도하는 매체가 없었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왜곡보도로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싶어 현장으로 나왔고 현장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상황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시위대의 데모였다. 데모대의 크기, 구호, 이에 대한 계엄군의 진압방식등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상황파악을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위대의 데모가 의미작업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잔인한 현장을 본 사람들의 목격담, 소문, 유언비어등이 의미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저항하는 광주에서 중요한 것은 시위와 <투사회보> 등과 같은 유인물이었다. 일부 학생들이 광주시민들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투사회보>는 5월 20일부터 들불야학에서 일하던 윤상원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발행되어서 그날 그날의 정보와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투사회보>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분명히 밝히려고 하였고 이는 곧 제대로 된 정보가 끊어진 광주에서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왜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되어 무자비한 강경진압을 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지? 이 강경진압의 책임자는 누구이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현재의 공수부대 투입상황은 어떠하며 시위대의 상황은 어떠한지? 어디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시민들은 왜 싸워야 하는지 등 이 사태의 원인과 배경, 현재 시위대의 상황과 피해 현황, 앞으로 해야할 일 등을 주로 실었다. 공동체광주 이후 이것은 <민주수호회보>로 이름을 바꾸어서 발행되었다.

공동체광주에서 중요한 것은 궐기대회였다. 궐기대회는 도청 앞 광장에 무료하게 앉아

[24] 이러한 언론의 행태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은 MBC를 불태웠다.

[25] 광주사태를 보도한 외신기자 중에는 독일의 힌츠페터 기자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스토리는 "택시운전사" (2016)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분수대에 올라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분수대 주위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며 시작되었다고 한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286) 궐기대회는 이처럼 모여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 자연발생적으로 그날그날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후 매일 매일 열려 서로간에 상황 정의를 공유하고 정체성 변화를 확인하며 이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일체감을 나누는 장이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을 대변해줄 시민단체ngo도 언론도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나선 사람들은 항쟁지도부의 일부 인력이었다.

당사자이자 운동가인 사람들의 시위, 투사회보, 궐기대회를 통한 노력 덕분에 상황정의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에서는 어떤 상황정의의 변화,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상황정의 변화: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옳다"는 도덕적 정당감

위에서 잔혹한 신체적 폭력과 인간 이하의 굴욕감을 주는 행위들이 광주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 일으켜서 한편으로는 뿔뿔이 흩어져 각자도생 (부마사태)의 길을 모색하게 할 수 있지만, 다른 편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몰살 위기에 까지 몰리게 되면 오히려 반작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충격이 너무 심하면 예상과 다르게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부마항쟁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광주의 경우에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할만큼 다 해 봤지만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포기하고 현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아니다"라고 상황 정의가 변화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많은 광주시민들이 처음에는 유언비어나 소문을 듣고 "설마" "무슨 착오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리 그렇게 까지야 하겠나"라고 반신반의하고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무자비하고 잔인한 강경진압의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는 충격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럴 수는 없다""사람을 개 패듯 패다니"라고 분노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에 저항하는 데모대의 시위와 구호를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정의롭지 못한 국가폭력에 맞서 저항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는 도덕적 정당감이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이런 생각이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생각이고 해외매체에서도 인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무자비한 강경진압과 살상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또한 시위 가담여부에 상관없이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구 때리고 연행하며 무차

별적으로 강경진압 하는 것을 보고 "광주사람 다 죽이러 왔구나" "이러다가 다 죽겠다. 몰살당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급을 넘어선 공동체 연대감을 갖게 된다. 이리하여 계급을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데, 시위에 참여하는 경험 또한 새로운 카타르시스를 불러온다. 몸과 몸으로 부딪치며 확인하는 동지애는 계급차이를 뛰어넘어 "이럴 수는 없다"라는 서로의 느낌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5월20일 택시운전사들의 차량시위는 이런 공감과 지지를 더욱 북돋워 주었다. 또한 시위대를 구경하는 목격자들의 박수와, 밥을 지어 올려주고 음료수를 전해주는 등 공동체의 공감과 지지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키워 주고 용기를 주었다. 또한 이는 참여자뿐만 아니라 목격자에게 새로운 공감과 지지를 불러 일으켜 참여를 더욱 독려하게 된다. 조선대생 김종배, 평범함 회사원 김준봉 등도 이렇게 해서 시위대에 동참하게 되었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209, 193)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가 주는 공감과 지지가 시위대에 용기를 주어 용감한 저항의 행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몸에 태극기를 휘감은 청년이 도청 앞으로 뛰어들면 총성이 나고 (즉 계엄군이 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러면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뛰어들 것 같 같은데, 다른 태극기 청년이 또 뛰어 들고 또 총성이 나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태극기 청년이 뛰어들고 또 다시 총성이 나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201-202). 또한 장갑차 위의 청년이 도청으로 돌진했고 총성 이후에 (즉 총맞아 쓰러진 후) 도청으로 뛰어드는 또다른 돌진차량이 이어졌다고 한다. 시위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했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203-204).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는 "더 이상은 안돼"라는 상황정의 변화 또는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나는 폭도가 아니야" 라는 정체성 변화에 기반해 가능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광주시민이 무장하게 되고 시민군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옳다"는 도덕적 정당성과 공동체적 연대가 주는 공감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대부분의 학생시위나 민주화 운동은 대부분 비조직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이었다. 3.1 운동, 광주학생운동, 4.19 혁명 등이 그러했다. 그러나 오월광주가 비조직적 항쟁이면서도 무장을 갖춘 유례가 흔치 않은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도덕적 정당성과 공동체의 지지 위에 근대 민족운동의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만길 2007,360).

광주는 예전부터 공동체성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강만길 2007), 공동체성이 강화된 것은 청년들의 죽음을 무릅쓴 시위였다. 이는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압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시위하는 젊은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았다."는 말에 드러난다.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심정과 분노하는 마음을 시위로 대변해주는 시위 학생들이 광주시민에게는 자신의 자식들 같이 고맙고 기특했을 것이다. 이는 가족 같은 공동체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시민들이 너도 나도 시위에 동참하게 되었고, 많은 여성들은 가마솥을 걸고 밥을 지어 시위대에 제공하였다.[26] 다른 사회에서도 그러하겠지만 한국사회에서도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한 식구가 된다는 것으로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공동체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공수부대의 강경진압이라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수부대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동체 내에서는 사람을 인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의 따뜻한 배려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죽으려고 작정하고 나서니까 결국 살게 된 것이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라는 노자의 말이 맞았다.

### 3) 정체성 변화: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우리는 광주시민이다."

광주항쟁기간 동안 광주시민들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무자비한 강경진압과 신체적 폭력도 있었지만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빨갱이"로 왜곡한 것이었다. 보도통제하에 있는 언론들이 군부의 지시대로 광주는 "폭도들에 의한 난동", "빨갱이 침투" 등의 기사들을 대서특필하고 군부가 헬기를 통해 "폭도들에게 알린다" 등의 전단을 살포하여 광주시민을 폭도로 규정하였다. 광주시민들은 외부로부터 자신들에게 덮어씌어진 "폭도" "빨갱이" 등의 잘못된 정체성에 가장 분노하고 울분을 토하였다.[27]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는 많은 노력들은 잔인한 폭력의 강경진압에도 초점을 두지만 폭도 빨갱이라는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도 많은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집회를 통해 광주시민들은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분명히 하려고 애썼다. 정부에서는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몰고 있지만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가해자는 공수부대이고 피해자는 광주시민임을 분명히 했다. 5월 22일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궐기대회에서 광주시민들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분수대 주위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정한 형식이나 제약도 없이 이루어지는 궐기대회였다.... 이들의 분노와 상황인식은 매우 분명하고 거침이 없었다"(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286) 이러한 궐기대회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히는 자리였고 "서

[26] 5월21일부터 부녀자들이 솥 걸고 밥을 짓기 시작하는데, 김경애 사례의 경우 시위대가 맞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두문불출하다가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193-194

[27] (1980년 5월 22일) 군용 헬기가 공중에서 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였다. 시민들은 전단을 받아보고 즉시 찢어버리거나 하늘에 떠 있는 헬기를 향해 주먹질하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찼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285

로 공감하고 일체감을 느끼는"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286) 자리였다.

많은 광주시민들은 처음에는 전두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다가 시위대의 구호, <투사회보>, 궐기대회 등을 통해 그가 보안사를 장악하고 공수부대를 보낸 군부의 실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가해자로 규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해자는 공수부대다," "전두환정권이다." "모든 군인 혐오" "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잘못한 것은 너희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람을 마구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게 되었다. "저들을 몰아내야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101) 가해자 피해자 규정이 되자 피해자로서의 몰살위기가 연대감 공동체 의식을 불러와서 "뭉치는 수 밖에 없다"."나도 죽여라 우리 다 죽여라" "우리 다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들게 했을 것이다. 고통받는 광주의 단계에서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 억울한 마음이었고,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감정은 울분과 분노라고 한다면, 저항하는 광주에서 공동체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의 감정은 공동체 의식과 이에 기반한 공감과 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공감으로 바뀌면서 개인과 공동체가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죽을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했다는 것은 이렇게 밖에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 4) 죽음을 무릅쓴 도청사수의 의미: 인간존엄의 공동체로

연구질문에서 던전 마지막 질문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이 다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광주의 청년과 시민들이 도청사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죽음을 무릅쓴 도청사수는 해방적 파국이자 탈바꿈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이다. 당시 상황은 계엄군이 일시적으로 물러간 공동체광주의 상태로서 수습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당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수습위원회와 광주시민들은 여러 중요문제와 관련하여 입장이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총기회수도 이미 많이 진행되어 그나마 있던 시민군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계엄군이 다시 진입해 들어온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계엄군의 숫자나 무기나 장비는 광주시민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에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즉 그냥 목숨을 던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도 수 백명의 광주 청년들과 시민들이 도청사수에 나섰는데 이들은 왜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했을까?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예고한대로 다시 광주로 진입했고 도청을 다시 장악했으며 도청사수에 나섰던 많은 청년들이 죽고 다치고 잡혀갔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먼저 왜 그랬을까와 관련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간존엄의 공동체라

는 가치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들이 지옥과 같은 강경진압을 당하면서 가족 친구 이웃 등 많은 사람의 죽음과 부상을 보고 나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중지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반대의 것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신체적 폭력과 강경진압을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그렇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죽겠다는 마음가짐이었을 것이다. 광주는 계엄군이 짓밟는 사회와는 다른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인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더욱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과 파국적 충격을 세상에 알리고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얻은 도덕적 정당성과 공동체적 연대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도청사수에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더 큰 새로운 이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었다.

둘째, 이제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지금까지 지키기 위해 싸워온 광주의 진실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죽음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죽음을 선택했을 것이다.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과 충격을 세상에 알리고 표출적 전환을 통해 얻은 도덕적 정당성과 공동체적 연대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도청사수에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의 소중함, 존중과 배려의 소중함,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기 때문일 수 있다.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하고 광주를 고립시킨 것이 광주를 하나로 뭉치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철저히 고립되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광주를 내부에서 더 상호 의지하고 뭉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교통 통신과 물자조달, 지원이 끊긴 상황에서 그들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28] 그리하여 저항기간과 해방기간 동안 혼란상태가 아니라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운명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던지는 것도 불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 가능하다. 하나의 설명은 공동체 위해 개인이 희생한다는 것이다. 죽음이 개인으로서는 파멸일 수 있으나 이 경우 파멸을 통해 살아서 성취 못한 이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죽음은 더 큰 새로운 이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었다. 또 하나의 설명은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

[28] 이러한 공동체 사회가 형성된 데에는 광주의 특징인 공동체성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시위하다가 맞고 쓰러지고 끌려가는 것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며 각자도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광주시민들은 달랐다. 광주에는 이웃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정기 2007). 이는 "시위하는 젊은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았다."는 말에 드러난다. 이들은 시위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을 나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자식, 내 가족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공동체성이 잘 드러나는 말이다. 이는 계엄군이 물러간 "해방기간"동안 가마솥을 걸고 밥을 해서 시위대에게 제공하게 된 여성이 한 말이기도 하다.

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결합한 다는 것이다. 개인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이고, 개인의 존엄이 공동체의 존엄이 된 경우, 개인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게 된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 단계 승화한다는 것이다. 광주는 후자의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토론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내면의 탈바꿈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고통받는 광주의 단계에서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 반신반의, 억울한 마음 등 인지적인 것이었고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감정은 울분과 분노의 도덕적 감정이라고 한다면 저항하는 광주에서 공동체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의 감정은 공동체 의식과 이에 기반한 공감 등 정감적 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공감으로 바뀌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했다는 것은 이렇게 밖에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오월광주 탈바꿈의 세가지 메커니즘**

| 성스러운 규번의 위반 | 충 격 | 카타르시스 |
|---|---|---|
| 무자비한 신체적 폭력과 살상으로 생존 위협 | 무자비한 살상의 충격<br>두려움 공포 분노<br>"이럴 수는 없다"<br>"이러다 몰살 당하겠다."<br>"우리가 국민 맞나?" "우리가 인간 맞나?" | 패러다임의 변화-광주 진실 위해 "죽어도 좋다" "다 죽여라" "다 죽자"<br>몰살위기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연대감 공동체 의식 "나도 죽여라", "우리 다 죽여라", "불나방처럼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했다", "시위하는 젊은이들이 다 내 자식 같았다" |
| 유언비어 언론통제로 공포감, 지역정서 자극, 정체성 위협 | 진실은폐와 왜곡의 충격<br>언론통제 한 줄도 보도 안 되었다.<br>폭도 빨갱이로 왜곡: 얻어맞은 것 보다 더 분노 | 정체성의 변화<br>"우리는 폭도가 아니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가해자는 공수부대다 전두환 정권이다", "우리는 무고한 시민일 뿐이다" |
| 광주 봉쇄와 고립으로 공존 위협 | 광주봉쇄와 고립의 충격<br>(교통, 통신, 생필품 조달 끊김) | 외부로부터 고립되자 내부끼리 더 뭉치게됨<br>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해방기간 동안 상호 존종 배려하는 공동체로 |

##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518 광주의 10일간의 전개과정에서 이전 연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 가지 의문점 또는 특이성에 기반하여 오월광주를 의도되지 않고 우연히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탈바꿈이라고 규정하고 접근하려고 시도하였다. 연구질문은 첫째, 오월광주는 어떤 탈바꿈을 거쳐 갔는가, 둘째, 그러한 탈바꿈을 가능하게 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이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서 오월광주는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그리고 "공동체광주"로 탈바꿈을 하였다고 보았고 둘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벡의 탈바꿈 이론에 기반하여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 파국적 충격, 그리고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3개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벡의 탈바꿈 이론은 518 광주를 탈바꿈으로 보는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518 광주에서는 고통받는 광주, 저항하는 광주, 공동체광주로의 탈바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기제로서 성스러운 규범의 위반, 파국적 충격,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의 세가지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보았다. 그중 파국적 충격으로는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국가폭력의 충격, 진실은폐와 왜곡의 충격, 광주의 봉쇄와 고립의 충격을 들어 설명하였다. 표출적 패러다임 전환으로는 의미작업의 주체, 패러다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도청사수의 의미 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또한 내면의 탈바꿈을 동반한다고 보았다. 고통받는 광주의 단계에서의 감정이 두려움과 공포, 반신반의, 억울한 마음 등 인지적인 것이었고, 고통받는 광주에서 저항하는 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의 감정은 울분과 분노의 도덕적 감정이라고 한다면 저항하는 광주에서 공동체광주로 넘어가는 단계의 감정은 공동체 의식과 이에 기반한 공감 공감 등 정감적 유대라고 보았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공감으로 바뀌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공감으로 바뀌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불나방처럼 또 뛰어들고 또 뛰어들고 했다는 것은 이렇게 밖에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탈바꿈이 일어나게 된 것은, 부마항쟁에서와 달리 각자도생의 개인을 넘어 인간존엄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시위, <투사회보>, 궐기대회와 같은 전달자를 통해서, 정의롭지 않은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것은 옳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확신하고. 계엄군의 무자비한 강경진압에 맞서 저항의 공동체를 만듦으로써 "너희"는 잔학한 강경진압을 통해 독재와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였지만 "우리"는 민주와 인권을 존중하는 선량한 시민들임을 보여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광주시민을 "폭도" "빨갱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폭도 빨갱이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민주적인 시민임을 보여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 공감을 통해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샹대방이 원하는 것임을 깨달은데서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었으며, 그들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코스모포리탄적 심성과 연대가 작동했다고도 볼 수 있다(Shim, 2017).

오월광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후의 한국의 시민운동에 큰 기초를 깔았다고 할 수 있다. 죽음을 무릅쓴 도청사수의 노력은 특별한 의의가 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와 관련하여 다양한 설명 가능하다. 하나의 설명은 공동체 위해 개인이 희생한다는 것이다. 죽음이 개인으로서는 파멸일 수 있으나 이 경우 파멸을 통해 살아서 성취 못한 이상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죽음은 더 큰 새로운 이상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었다. 또 하나의 설명은 개인과 공동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미묘하게 결합한 다는 것이다. 개인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이고, 개인의 존엄이 공동체의 존엄이 된 경우, 개인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게 된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 단계 승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의 개인중심의 가치관 또는 집단 중심의 가치관과 다른 것으로서, 절대 절명의 위기를 넘어서는 양자의 결합 또는 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5.18 광주의 경험은 이런 희귀한 탈바꿈의 가능성이 실현된 귀중한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오월광주의거 청년동지회(편), 1987, 518광주민중항쟁 증언록, 광주.

518광주민중항쟁 유족회(편), 1989, 광주민중항쟁 비망록, 도서출판 남풍.

5.18기념재단 엮음, 2007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1: 5.18민중항쟁의 의의, 광주: 심미안.

_____, 2007,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2: 5.18 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광주: 심미안.

_____, 2007,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광주: 심미안.

_____, 2007,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4: 5월운동의 전개, 광주: 심미안.

_____, 2007,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5: 5.18과 민주화 5.18 민중항쟁의 기억과 과거청산, 광주: 심미안.

5월여성연구회, 1991,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강만길, 2007, "근대 민주주의의 전통과 광주"'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2: 5.18 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321-362, 광주: 심미안.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8, 518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1권-제20권.

김진균, 정근식, 2007, "광주5월민중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5.18기념재단편 2007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2: 5.18 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123-160, 광주: 심미안.

안진, 2007, "광주민중항쟁의 사회구조적 배경에 관한 일 고찰",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2: 5.18 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223-247, 광주: 심미안.

안종철, 2007,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5.18기념재단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광주: 심미안.

장덕진, 2018, "혐오의 정치학", 경향신문 2018.11.26.

전남사회문제연구소(편), 1988, 518광주민중항쟁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정상용 외 8명, 1990,『광주민중항쟁: 다큐멘타리』, 돌베개.

정해구 외,『광주민중항쟁연구』, 사계절, 1990.

최정기, 2007a, "국가폭력과 대중들의 자발적 저항,"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2: 5.18 민중항쟁의 원인과 배경 광주: 심미안.

최정기, 2007b, "5.18과 양민학살",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광주: 심미안.

최정기, 2007c, "광주민중항쟁의 지역적 확산과 주민참여기제", 5.18기념재단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3: 5.18민중항쟁의 전개과정>, 광주: 심미안.

최정기, 2015,「5·18 당시 시위대와 군중론 : 18일부터 21일까지를 시위군중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현대사회과학연구』제19권, 1-19쪽.

최정기, 2015,「5·18 당시 시위대와 군중론 : 18일부터 21일까지를 시위군중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현대사회과학연구』제19권, 1-19쪽.

최정기, 2016, "518연구소 20년과 518연구: 연구성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 16(4), 5-31쪽.

최정운, 2012,『5월의 사회과학』, 오월의 봄.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1990,『광주오월민중항쟁 사료전집』, 풀빛.

한상진, 1998,「광주민주화운동에서 본 국민주권과 승인투쟁」, 한국사회학회 편,『세계화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나남출판, 57~80쪽.

한상진, 2019,『한반도 탈바꿈과 제2의 광복』, 중민출판사.

한상진, 2007, "5.18, 인권과 유교민주주의", 5.18기념재단 엮음 2007 5.18 민중항쟁과 정치 역사 사회 1: 5.18민중항쟁의 의의. 광주: 심미안.

황석영, 이재의, 전용호, 2017,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서울: 창비..2019.2.14.

홍세화, 2019, "혐오의 정치학", 한겨레 2019.2.14.

Katsiaficas, Georgy, 2009,「역사 속의 광주항쟁」, 조희연·정호기 엮음,『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한울, 317~339쪽.

Ahn, Jean, 2001,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Gwangju Uprising", *New Political Science*, 25(2), June.

Beck U., 2017, *Metamorphosis of the World*, Polity Press.

_____, 2015, Emancipatory catastrophism: What does it mean to climate change and risk society? *Current Sociology* vol. 61. No. 3: 75-8.8

Beck, U., and Edgar Grande, 2010,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Extra-European and European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63, No. 3.

Chen, Guo-Ming, 2008, "Bian (Change): A Perpetual Discourse of I Ching,"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tudies, 17(4): 6-16.

Cho Hee-yeon et al. (ed.), 2009, *A New Reflection of the May 18th People's Uprising*, Hanulbooks.

Choi Jung-gi, 2016, "The years of May 18 Institute CNU and the Studying May Uprising Movement",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 16, No. 4, 5-31.

Choi Jung-gi, 2015, "Demonstrators and May Uprising Movement in 1980 and the Theory of Crowd", *Contemporary Research of Social Science*, vol. 19, 1-19.

Chu Choeng-Lip, 2007, "State Violence Based on Alienation Theory: Focusing on Massacre in Hiroshima, Auschuwitz, and Gwangju", *Korean North-Asian Journal*, vol. 43, 197-219.

Glaeser, Edward, 2005, "The Political Economy of Hatred,"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0, issue1 February, 45-86.

Han, In-sub, 2006, "Kwangju and Beyond: Coping with Past State Atrocities in Korea" in In-sub Han, *5·18 Trial and Social Justice*, Kyungin-Moonhwasa, 2006, 208-277.

Han, Sang-Jin, 2015, "Emancipatory catastrophism from an East Asian perspective: Feedback from the dialogue organizer," *Current Sociology* vol. 63. No. 1: 115-120.

Han, Sang-Jin and Young-Hee Shim. 2018 "The Global Economic Crisis, Dual Polarization, and Liberal Democracy in South Korea." *Historical Social Research* 2018, vol43, no. 4:274-299.

Han, Sang-Jin, Young-Hee Shim and Young-Do Park, 2016, "Cosmopolitan Sociology and Confucian Worldview: Ulrich Beck in East Asia," *Theory, Culture, and Society, Annual Review 33,* 7-8: 281-290.

Katsiaficas, George, 2001, "Comparing the Paris Commune and the Gwangju Uprising", *New Political Science*, 25(2), June.

Katsiaficas, George, 2009, "Gwangju Uprising in the History", Cho Hee-yeon et al. (ed.), 2009, *A New Reflection of the May 18th People's Uprising*, Hanulbooks, 317-339.

Kurasawa, Fuyuki, 2007, *The Work of Global Justice: Human Rights as Practice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 Jae-eui (translated), 1999, *Gwangju Diary: Beyond Death, Beyond the Darkness of Age*, UCLA Asian Pacific Monograph Series (originally published in Korean language in 1985); reprinted by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in 2017.

Legge, James, 1899, The I ching, translated by J. Legge in Sacred Books of the East, vol. 16.

Mueller, Max (ed.), 1965, The Sacred Book of China: The I Ching, New York: Dover Publications.

Na Kahn-chae, 2001, "A New Perspective on the Gwangju People's Resistance Struggle: 1980-1997", *New Political Science*, 23(4), December.

Park, Eun-jung, and In-seub Han, 1995, *5·18 Legal Responsibility and Historical Responsibility*, Ehwa Women's Univ. Press.

Shim, Young-Hee, 2018, "After-effects of Gwangju Incidence after 38 Years: An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of Those Who experienced it." 19th 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 Toronto, Canada, July 15-21, 2018

_____, 2017, "Metamorphosis of the Korean 'Comfort Women': How Did *Han* Turn into the Cosmopolitan Morality?." *Development and Society* vol 46(2): 231-278.

_____, 2015, "Research Methodological Debate on Emancipatory Catastrophism: The Case of Transnational Marriage," *Current Sociology* vol. 63. No. 1: 105-109.

_____, 2009, “From Silence to Testimony: The Role of Legal Institutions in the Restoration of Collective Memories of Korean Comfort Women,” *Legal Institu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Hart. 135-157.

The May 18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Gwangju City 2000,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ranslated by Lee Kyung-soon and Ellen Bishop.

중민사회이론연구재단

Joongmin foundation for Social Theory

0878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64, 202호
(봉천동, 대우슈페리움1단지) www.joongmin.org